

지스트 등 7개大 - 전라남도 - 산업계, 전남권 '세계 최대' 초강력 레이저 인력양성 협약 체결

- 9일 전남도청서 기초과학연구 및 첨단전략산업 발전에 필요한 레이저 전문인력 양성 나서



▲ 지스트 등 지역 7개 대학과 전라남도, 광학·레이저 산업계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의 전남도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고, 레이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9일(목) 전남도청에서 진행한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를 포함한 지역 7개 대학과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광학·레이저 산업계가 레이저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이자 호남권 유일의 국가 대형연구시설인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의 전남도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9일(목) 체결했다.

지스트와 전라남도 등은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지스트 김기선 총장, 군산대 이장호 총장, 목포대 송하철 총장, 전남대 정성택 총장, 조선대 민영돈 총장, 한국에너지공대 윤의준 총장, 한동대 김종록 부총장, 한국광산업진흥회 김동근 상근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 레이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레이저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스트와 전라남도 등은 이번 협약을 통해 ▲레이저 교육과정 개설 및 전문인력 교류 ▲인력양성 협의체 구성 및 국가사업 공동건의 ▲장비 및 연구정보 공동 활용 등 상호 협력 기반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석·박사 통합과정 등 커리큘럼 및 연구시설 공유하는 한편, 설계·제조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역점을 둘 예정이며,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연대 실습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 광학·레이저 산업계는 숙련된 고급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해외 경쟁력 저하로 레이저 인력 양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레이저는 반도체·우주항공·에너지 등 모든 첨단산업의 필수 요소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레이저 관련 석·박사급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원은 전국 15개 정도로 배출 인력도 연간 70여 명에 불과하다.

전문인력 부족은 원천기술 확보가 핵심인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광학·레이저 관련 기업은 2,000여 개가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또한, 국내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50% 이하에 그치고, 특히 핵심부품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스트는 정부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광기술 전문 기초 및 응용 연구기관인 고등광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의 레이저 분야 인력 양성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김기선 총장은 “지스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등광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남도의 초강력 레이저 신사업 선점을 위해 협력하고, 레이저 기초연구와 광기술의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한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